



# 연중 제24주일 (9월 11일)

## 되찾은 양과 은전과 아들의 비유 (루카 15,1-32)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5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살살이 뒤지지 않느냐? 9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11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12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쟁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14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15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17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18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



져다 입하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25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26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27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29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31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32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7)

하느님께서는 잃은 것을 되찾고 기뻐하는 이들처럼 회개하는 죄인을 반기시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회개로 인해 기쁨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루카 15,10)

루카는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를 통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알려 주고 계신지 나누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없는 사랑

사랑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약에’식 사랑(Love of If)입니다. 그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런 식의 조건을 앞세우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때문에’식 사랑(Love of Because)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는 게 많아서” 등등 상대방의 가치에 따라 바뀌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식 사랑(Love of Nevertheless)입니다. 상대방의 조건과 가치가 자신의 기대와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베풀고 싶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앞의 두 가지 사랑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사랑앞에 무수한 조건들을 달아 놓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들 조건에 목을 맨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지금 그대로

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있는 곳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포근히 안아 주십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온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협력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복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